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

☞29면에서 계속

그것이 악업 선업이 바로 의식들이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 착하게 쓰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마음을 하고 착한 행을 하고 그러면 모든 식구들을, 바깥의 식구들을 착하게 만들고 안의 마음도, 그러니까 안의 식구들도 그 마음을 따라서 수십억의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한마음으로 따라 주니까 '아! 이렇게 된 사실이구나.' 하고선 속에서 알고는 전부 화해서,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의 화신이 돼 줘요. 보신이 돼 주고 화신이 돼 주고 법신이 돼 주고 부처가 돼 주고. 이렇게 하니깐 모든 게 이 한 의식이 전부 이렇게 한데 모아져서 기둥이 돼서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양물 올릴 때의 마음가짐

문) 우리가 보통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미나 초 또는 꽃 등 가지가지 공양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하는지요.

답) 이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이면서 공심이고, 공심이면서 공체고, 공체면서 공용이고, 공용이면서 공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심으로서 해야 공덕을 받죠. 공심이 아니라면 공덕이 안됩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말한 원인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시의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영령들의 큰 목욕탕이 될 수 있고 꽃 한 송이 가지고도 영령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양이에요, 꽃공양. 향공양, 모두가 공양. 그래서 이 공양을 정말 알고 내려 먹는 사람은 그건 제 밥 제가 내려 먹는 거고, 알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 밥 먹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밥을 자기가 내려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도의 길입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니 걱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이게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내 아들 내 남편 잘되게 뭐, 그러니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 마음도 그래요,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벌써 이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 그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지,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이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란 말입니다. 그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그거를 넣어요.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넣는다고요. 거기서들 죄 제가끔들 모두 먹는 겁니다. 그러고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그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는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해요. 그런데 그 구멍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저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혀 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 **부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 **바로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시니**
>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나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그냥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성을 내고 하면 저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충이 빨리 이게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방망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마음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문) 요즘 저는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관하라고 하지만 너무 아플 때는 관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어떡하면 좋을 까요, 스님?

답)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고쳐 주러 나셨지 육신의 병을 고쳐 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건 왜냐. 마음의 병을 고치면 육신의 병은 스스로서 자기가 약사가 되고 관세음이 되고 전부 하는데 무슨 그렇게 이것저것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병이 아니라 공부하라는 재료지요, 그게. 그것도 말입니다, 생각을 '아이구, 내가 이 어지러움 병이 생겼으니깐 그저 가서 보약이라도 지어 먹고 이럭해야겠다.' 그러고 바깥으로 떠도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으로도 이 공장이 많은 세계, 이것도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세계라고 그러지만 이 몸 안에서도 이 몸 안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그게 세계래요. 아, 나라가 좀 많습니까. 위나라, 대장나라, 소장나라, 식도나라, 간장나라, 방광나라, 콩팥나라,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데 합쳐서 지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전부 내면이나 외부 모든 것을 바로 그렇게 한마음으로서 해 놓아야죠. 그 한마음으로 된 것이 헤아릴 순 없습니다. 유생, 무생, 무의 법, 유의 법 모두 사생이 다니까 말입니다. 천차만별이니까요.

주인공이라는 게 한마음으로 된 하나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개별적인 주인공으로만 알지 마세요. 포괄적인 주인공입니다. 그 생각을 넓게 하세요. 그 한마음의 주인공만이 이 안의 모든 공장들을,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내가 생각이 그렇다면 거기 그 생각하기 이전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신들이 그냥 거기서 전부 통신을 합니다. 이것을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되지만 불가에서는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진으로다가 탁와 가지고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 판단력과 들이고 내는 작업과 통신력, 이것을 누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누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3미터 안으로 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보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을 '아하, 내가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떡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로구나. 아이고,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로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는 동안에 바로 그 어지러움증은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속지 않으니까. 그냥 바둥바둥하고 그렇게 속아서 애쓰면 재미있거든, 또. 무서워서 벌벌벌벌 기는 놈은 더 무섭죠, 왜. 그러니 그거를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한문으로다가 그냥 역설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세상 법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바깥으로 찾지 마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백억화신도 계시고 중생들도 그렇게 많으니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면 이 속에 든 그 중생들이 전부 바로 보살로 화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이 몸속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아, 첫째 마음 편안하니 좋지, 중생들 제도해서 보살로 화하게 만드니 좋지, 내 가정이 화목하니 좋지, 우환 안 끓으니 좋지, 병고 없으니 좋지. 병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겁이 나질 않죠. 이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요, 바로 자유스러운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새 자식이 입시생이 되었습니다

문) 어느 새 자식이 입시생이 되었습니다. 애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식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근데 다른 것보다 자식 문제는 잘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몰락 놓을 수 있을까요?

답)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도 그것이 댁의 진짜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진짜로 믿는다면 잘못하는 게 보이면 잘못하는 걸 한데 모아서 그냥 공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모든 거를 주인공에 딱 맡기면,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맡기면 그렇게 편안한 거를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제삼자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깐 오직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매달리십시오. '너만이 해결 할 수 있다. 이 모습 가진 모습하고 정신계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요. 그거는 댁이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꼭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꼭 그 대가를 치르고야 그 물건을 사 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다소 돈이 많든 적든 넣어서 모자라는 그릇을 채워라 하고 정성을 들여 주고 그렇게 자꾸 관해 주고, 그렇게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잘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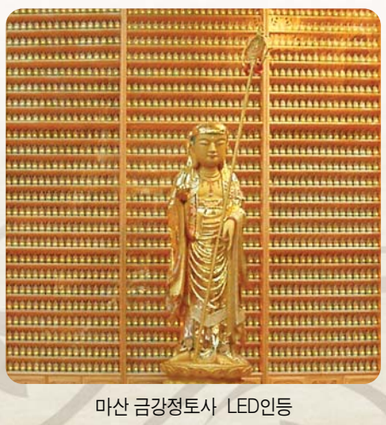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